

## 생명의 씨 뿌리기

마가복음 4:1-9

정 호 진(농부목사, 경남 합천 생명누리농원)

늦여름의 따가운 햇살을 등으로 받으며 열심히 퇴비를 실어 다 넣고 두둑을 지어 가을 김장 배추와 무우 그리고 알타리를 일부 심었다. 이렇게 심은 것들이 싹이 잘 나고 커져서 보기에 도 좋고 맛도 있는 배추와 무우가 되고 알타리가 되어 우리 공동체와 여러 아는 이들의 겨울 김장이 되어 풍성한 식탁이 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이러한 시기에 씨뿌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 농사를 짓기 전에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언제나 씨뿌림에만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농부가 되고 부터는 농사에 진정으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분명하게 깨달아가게 되어 약간씩 강조점이 이동되기 시작했다. 농사에는 삼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 모두에 관심이 넓혀지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 농사를 제대로 하려면

농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땅 만들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문에 나타나는 땅은 길가와 돌짜밭과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마가 4:13-20) 어느새

땅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상태로 넘어가고 말지만 (알레고리직 해석) 농사짓는 자의 눈으로 보면 본래의 그 땅에 더 관심이 간다. 예수 당시의 팔레스틴 농부들은 좋은 땅이 아닌 곳들에도 씨를 뿌리는지 모르나 제대로 된 농사를 짓자면 생명이 살아있는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씨뿌리기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돌들도 골라내고 거름을 만들어 넣어서라도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농사의 고전에 소농 작초요 중농 작곡이요 상농 작토라는 표현이 있다. 제대로된 바른 농사는 땅만들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지금 우리 농촌의 땅은 겉보기에는 좋은 토양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더 이상 생명이 생명답게 자라갈 수 없는 죽어있는 땅이다. 그렇게 죽어버린 이유는 바로 이윤 동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소위 현대과학농법 때문이다. 생명 있는 땅과 그 위에서 자라는 작물과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생명사랑의 가치관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남기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농사를 짓게 되면 땅도 죽고 그 위의 생산물을 먹는 사람의 생명도 죽어가게 마련이다.

## 현대과학영농법이 지닌 허구

소위 현대과학영농이란 것을 생각해보자. 그 대표적인 것들이 비료와 농약, 대형 농기계와 비닐하우스이다. 이것들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런 현대 과학영농법이야말로 농사의 터전인 땅을 죽어가게 만들었다.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퇴비를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소출이 많아지게는 되었지만 이의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땅이 단단해지고 산성화되어 지렁이가 살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비료의 원료도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야 할 뿐 아니라 화학적 합성물인 갖가지 비료를

다 뿌린다고 하여도 작물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비료를 뿌려도 우리의 땅은 생산력이 높아지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되고 말았다.

농약은 농작물과 그 수확물을 보호하는 화합물로서 '농업용독약'의 줄인 말이다. 그러나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흙속에 있던 각종 미생물들이 죽어버림으로써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잔류 농약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될 뿐 아니라 강과 바다까지도 오염되어 인체에 해로운 생산물을 내는 결과를 가져와 농약을 치는 농부의 생명이 위험할 뿐 아니라 그런 생산물을 먹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었다.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비료 농약살포기 등과 같은 중대형 농기계들이 없으면 농사를 짓는 데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기계들은 대체로 대단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가동되기 때문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많은 석유를 소모하며 농사를 지어야하기도 하고, 아직 대형 기계가 들어가 작업할 수 있을 만큼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기계들의 가격이 만만치 않아 농사지어 얻는 많은 소득이 기계대금으로 빠져나가다, 다 갚을 때쯤 되어 다시 새로 사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이 기계가 지닌 모순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육축농업 때처럼 부드럽게 땅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대형 농기계는 땅을 심하게 다루기 때문에 땅은 아파서 멍들고 신음하며 점점 더 생명력을 상실해가고 있기도 하다.

비닐하우스농사가 아니면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농민들이다. 그러나 비닐 멀칭이나 비닐하우스로 인하여 땅은 햇빛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바람도 통하지 않아 자신의 생명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한겨울에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사를 짓느라 엄청나게 많은 석유자원을 고갈시켜야 할 뿐 아니라 농민들은 쉬면서 새로운 한 해의 농사를 계획하던 겨울 농한기도 잃어버렸고 하우스병으로 인해 더 많은 병원비만 지출해야 하는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 게다가 도시소

비자는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제철 음식이 아닌 많은 생산물로 인해 계절 감각도 상실했고 또 다른 질병들을 얻고 있다.

이처럼 현대과학영농이란 것을 자세히 보면 모두가 돈을 위하여 단기적인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땅이 지닌 본래의 생명 본질을 망각한 채 죽임의 농사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 좋은 땅을 만들려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죽이는 요소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중단하고 대형농기계의 사용을 억제하고 비닐하우스의 활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농기계 대신 토양미생물과 지렁이가 땅을 갈 수 있도록 미생물이 충분히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직사광선을 바로 받지 않도록 짚이나 낙엽 혹은 거름을 깔아주는 것이 좋다. 직사광선을 받지 않은 흙은 수분의 증발이 억제되어 축축하게 젖고 곰팡이와 미생물이 쉽게 번식한다. 곧이어 이들을 먹이로 하는 많은 선충이 모여 들고, 다시 그 선충을 먹기 위해 지렁이가 모여든다. 땅이 죽었는가 살았는가의 척도가 바로 지렁이가 살아있는 땅인가 아닌가 이다. 지렁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농기계 보다도 더 땅을 부드럽게 잘 가는 뛰어난 땅의 좋은 친구이다. 지렁이는 일년에 20-30리터의 흙을 먹고 그 배설물로 땅을 기름지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이 까지 공기가 잘 통하게 하여 작물의 뿌리가 잘 뻗을 수 있게 도와준다. 지렁이가 살고 있는 땅은 수분 흡수력이 아주 뛰어나 홍수를 막고 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며 해마다 5mm에 가까운 땅이 솟아나게도 만든다. 또 지렁이가 늘어나면 이것을 먹이로 하는 땅강아지나 두더쥐가 찾아와 흙을 파헤치기 때문에 땅은 점점 더 부드러워져 그야말로 좋은 땅이 된다.

## 우리자신의 좋은 마음밭 만들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현대과학영농법처럼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과도한 성장과 발전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이 병들어갈 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자연생태계의 생명까지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마음 밭이 옥토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제거하고 미생물과 지렁이가 살 수 있는 살아 있는 땅 곧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 숨쉴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노력하자.

## 좋은 씨앗 고르기

씨뿌림을 위한 두 번째 작업은 좋은 종자를 고르는 일이다. 농부들은 좋은 종자를 고르기 위하여 대체로 소금물에 담가두어 소독도 하고 떠오르는 빈약한 씨앗은 미리 건져내어 작물에게서 기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다. 좋은 혈통을 갖춘 씨앗의 생산은 곧 성공적인 농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의 농부들은 스스로 종자를 생산하거나 고를 줄 아는 능력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런 역할을 대체로 종묘상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좋은 종자로 개량해가는 일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나 그 종자가 지니고 있는 좋은 성질은 그 당대(일대잡종)에서 끝나고 말아 수확 후 다시 그 종자를 심으려고 하더라도 많은 변이현상(기형)과 병에 대한 저항력 저하 및 수확량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파종할 수 없는 종자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매년 새로운 종자를 종묘상에서 사와서 파종해야하니 돈을 버는 것은 종묘상일 뿐 농부는 더 많은 생산비를 지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전의 우리조상들이 가졌던 토종종자들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토종이 지닌 우수성을 생각하며 종자를 고르고 개발해가는 일이 농부의 일이 되게하는 점이 필요하다.

## 좋은 말씀과 실천이라는 씨앗 뿌리기

본문에서는 땅에 대한 차이는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한 밭에 뿌려지는 씨앗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좋은 종자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며 해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종자는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좋은 땅도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실천하고 전하는 말씀이 과연 올바른 가치관 위에 터잡은 말씀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르고 행하는 실천이 바를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좋은 씨앗이 되어 삼십배 육십배 백배의 결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 농부의 바른 마음가짐(올바른 가치관)과 정성

농사의 삼요소 중 마지막 하나는 농사짓는 이의 바른 마음가짐과 정성이다. 아무리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종자를 골라서 파종을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울이는 농부의 정성이 함께하지 않으면 올바른 결실에 도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윤동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땅과 종자 이외에는 관심이 없거나 무시한다면 여전히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하나의 작물은 좋은 땅과 종자이외에도 따스한 햇살 한줌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와 스쳐가는 바람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파종을 하는 자는 자연속의 무수히 많은 도움을 얻어 비로소 한생명이 되는 진리를 터득해야만 한다.

농작물들은 주인의 발자욱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한다. 그런데 동식물들은 주인의 발자욱소리만이 아니라 다정히 건네는 인사와 그들을 보며 즐거워하는 흥겨운 노래소리를 더욱 좋아한다. ‘너 참 예쁘구나.’ ‘너는 정말 탐스럽게 익었구나.’ ‘너는 빛을 못 봐 약해졌구나. 어서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렴’ 인사와 미소를 담은 마음을 건네면 동식물 친구들이 훨씬 더 잘 자랄 것이다. 일을 하는 농부의 자세는 이처럼 생명을 죽이는 노

동이 아니라 생명살림의 노동으로, 작물에 대해서도 군림하는 태도가 아니라 다정다감한 친구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농사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짓는 것이지 머리와 손발로만 짓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과중하여 얻는 생산물을 통하여 관계맺게 되는 많은 이들의 생명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정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먹을 고추나 배추에는 농약을 덜 치고 남이 먹을(판매할) 것들에는 우선 보기 좋고 싱싱해 보이도록 비료와 농약을 듬뿍 듬뿍 치는 농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내 이웃을 내몸처럼 생각하는 자세가 진정으로 씨뿌리고 돌보는 농부의 심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